뜻·욕심·속기 없이 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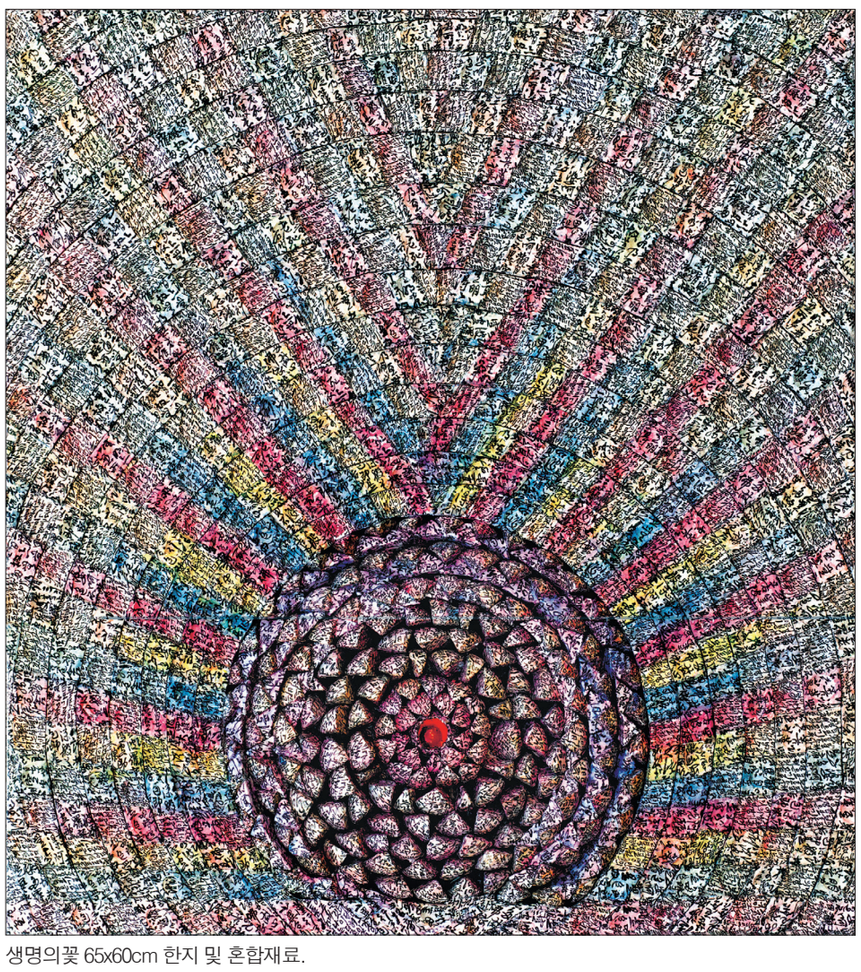
〈俗氣〉



108번뇌불 800×200cm 2008.



억만부처불 800×200cm 2008.



생명의꽃 65x60cm 한지 및 혼합재료.

'서예가 허회태'

B1면에서 계속

허 작가의 이모그래피는 기존의 서예 개념을 통째로 뒤집는 혁신적인 시도였다. 아니 단순한 시도에서 끝나는 일회성 퍼포먼스가 아니라 새로운 '길'이었다. 3천년 서예사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이었다. 기존의 서예는 '쓴다'였다. 글씨를 쓰는 것이었다. 조형성에 중심을 두고 문자가 가진 뜻을 전하는 예술이었다. 이어져 내려오는 서체의 또 다른 재연과 재현이었다. 하지만 허 작가의 이모그래피는 개념 자체를 달리한 것이다.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리는 것도 아니다. 쓰는 것이면서 그리는 것이다. '그린 글씨'라고 할 수 있다. 글자 하나하나의 본질을 파헤쳐서 새로운 형상을 그려내는 것이다. 서예와 그림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번의 붓질로 찰나의 세계를 가장 단순하게 축약하여 표현한다. 사물을 본떠 관념을 나타낸 문자가 아니라 감성을 나타낸 흔적이다.

"사물의 본질을 기운이 생동하도록 단순화된 형상으로 표현하는 이모그래피는 서예나 회화에서 보이는 문자나 형태가 아니라 감성을 나타낸 흔적입니다. 때론 허공을 가르며 비상하는 듯 불교사상을 가장 극대화한 표현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허 작가는 언제부턴가 '서예란 무엇인가' 고민하기 시작했다. 동양권에 한정된 한계성에도 회의를 품게 되었다. 시대와 세대, 지역을 가리지 않아야 진정한 예술이라는 생각에 도달했다. 그리고 허 작가는 그 이유로 글씨가 글씨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에 닿았다. 글씨가 글씨를 넘어설 때 진정한 서예, 예술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허 작가는 글자 한 자 한 자의 근원에 다가가는 시도를 모색했다. 그리고 허 작가는 그것이 부처님이 걸어간 길과 같은 길이라는 생각과 만난다. 허 작가는 이미 오래 전부터 부처님을 알고 있었다.

또 하나의 운명, 불교

"제가 서예에서 고민하던 것이 불교에 있었어요."

허회태의 이모그래피는 부처님의 생각에서 왔다. 이모그래피를 모색하기 전, 허 작가는 작품의 소재로 '반야심경'을 가장 많이 썼다.

"20대 초반부터 썼죠. 다른 경전들도 썼지만 '반야심경'을 가장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2천 번쯤 쓴 것 같아요. 다른 글과는 달라요. '반야심경'을 쓸 때는 마음가짐이 달라져요. 글을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살살이 뒤지는 것 같아요. 글자 한 자 한 자가 마음 구석구석을 들춰내는 느낌이에요. 나도 모르게 엄숙해지고 진지해져요.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숨을 곳이 없어요. 순간순간 만나는 마음들이 한 자 한 자 글씨가 되고 나면 서예에 대한 생각이 새로워지고, 나에 대한 생각 또한 새로워집니다. 하지만 매번 여법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도 있죠. 글자와 나 외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 때가 있죠. 그 땐 붓을 놓아야 합니다. 다른 글도 그렇지만 경전은 특히 더 그렇습니다. 손으로 쓰는 글은 서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쓰고 또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서예가 허회태를 관통하는 가장 큰 글자는 '佛'자였다. 어린 허회태에게 붓이 어울렸듯이 서예가 허회태에게 가장 어울리는 글자는 부처님의 글자였다. 그 불교는 그의 어머니로부터 왔다. 허 작가는 어려부터 어머니를 통해 불교를 만나왔다. 허 작가의 어머니는 늘 아들을 염려했다. 넉넉하지 못한 형편이 늘 미안했다.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늘 부처님 전에 기도를 올렸다. 아들의 안녕, 아들의 영화가 어머니 기도의 전부였다. 어머니의 기도가 깊어갈수록 아들의 불심도 자라났다. 늘 아들의 이름뿐인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를 지켜보는 아들의 마음속에 불심이 자라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일일 것이다. 서예가 허회태가 '반야심경'을 쓰기 시작한 것은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없다.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게 시작됐다. 또 하나의 운명, 불연인 것이다. 그렇게 허 작가는 불법(佛法)을 만났고 그 불법으로 서예를 하고 있다.

또 한 번의 확장, 이모스컬퓨쳐

올해 2월, 허 작가는 또 한 번의 확장을 시도했다.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열렸던 전시의 제목은 '심장의 울림'이다. 이미 '이모그래피'로 서예사에서 새로운 길을 열었던 허 작가는 또 다른 시도를 선보인다. '이모스컬퓨쳐(Emosculpture)'다. 이모스컬퓨쳐란 '이모션(Emotion)'과 조각품을 의미하는 '스컬퓨쳐(Sculpture)'를 합성한 단어로, 서예와 조각의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서예를 회화로 확장했던 허 작가는 서예를 다시 조각으로 확장했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형상을 만들고 있는 조각 작품은 한 편의 만다라를 보는 듯하다. 작은 조각들을 들여다보면 작은 글씨들이 보인다. 한자, 한글 그리고 영문도 있다. 또 한 번 서예를 확장시킨 전시에서 허 작가는 '반야심경' 등 자신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작은 글씨로 쓰고, 그 글씨들을 모아 한 편의 조각을 완성했다. 우주와 생명의 원초적 현상에서 비롯된 세계를 그리고 있다. 만다라다.

3천년 서예사를 다시 쓰다

2005년 '이모그래피' 창시

"불교사상 극대화한 표현기법,

문자 · 형태 아닌 감성의 흔적"

서예, 회화 · 조각으로 확장

서예의 예술적 한계성 극복

글자의 근원 찾는 서예 추구

"현대 조형회화와 조각설치작품은 2차원의 평면을 벗어나 3D 작품으로서 관객의 곁으로 다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는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우리 삶의 이야기가 소재가 되는 이번 작품들은 그 변화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관람객에게 새로운 해석을 부여하는 작품들은 심오한 매력으로 대중의 호평을 기대하고 있으며, 생명의 근원에 접근하는 철학적 경지를 보여주는 소통의 확장을 이루고자한 것입니다."

허 작가가 전시에서 보여준 작품들에는 '위대한 생명의 탄생'에서 시작하여 '생명의 꽃', '심장의 울림', '헤아림의 잔치'로 확장해가는 세계관이 담겨 있다. 형식은 정비된 콘셉트와 양식으로 진화하여 유기적관계가 잘 나타나 있다. '심장의 울림'은 본래 실체가 없어서 형상이나 색깔이 없지만 끝없이 오묘한 작용을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조정하고 움직이는 '마음'을 표현했다.

"마음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인식하고 이해하고 만듭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이며, 유심소현(唯心所現)이죠. 그러나 한자를 처음 만든 사람들은 마음의 작용이 심장에서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심장의 모양을 따서 '心'자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작용은 심장의 울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끊임없이 작용하며, 마음 안에서 밖으로 확산되어갑니다. 심장은 정밀함을 싫어하지 않으면서 심장의 언어로 말하는 그것이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심장의 울림'으로 작품에 투영되고 이입되는 것입니다."

허 작가의 이모스컬퓨쳐는 '心'에서 출발하여 확산된다. 균제와 균형을 잃지 않는다. 동서남북 4방위로써 인류의 질서를 구현한다. 따라서 그의 작품은 생명의 탄생에서 존재의 근원으로 파고든 세상의 소용돌이를 표현하고 있다. 한 가지 구도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합으로 예술적 영감을 불어넣어 끊임없는 창조의 과정을 보여준다. 심일경성(心一境性)의 경지에서 시각적으로 마음과 우주가 하나가 되어 끝없이 팽창 · 확산되어 소우주의 무궁함으로 표현된다. 선정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부처의 세계를 그림으로 표현한 만다라의 세계와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간의 세계가 서로 끝없이 이어지는 인드라망의 그물코처럼 무한하게 펼쳐진다.

허회태의 글씨는 이제 보이지 않으면서도 많은 것들을 이야기한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다. 깊은 이야기를 품고 있다. 보고 있어도 볼 수 없는 것이 허회태의 글씨고,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는 것이 허회태의 글씨다. 회회태의 서예다.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그 동안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을 성원해 주신 여러 스님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 드립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565-5
전화 031)573-3722 팩스 031)573-3723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숙면이 보약입니다. 특허 제10-1337352호

숯침대



숯침대의 효능 효과

① 부항과 뜸 효과를 볼 수 있으며 좌욕효과가 탁월합니다.
② 신체의 전자장을 조절하여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쾌적한 숙면에 도움이 됩니다.
③ 요통환자와 중풍, 고지혈증, 콜레스테롤에 도움이 되며, 손발이 차고 저리는 분에게도 효과가 있습니다.
④ 숯에는 수많은 공기구멍이 있어 구멍 속으로 공기분자의 흐름에 진통을 일으켜 원적외선 방출합니다.
⑤ 컴퓨터를 오래 사용하여 피로해진 눈과 어깨를 보호, 전자파를 상쇄시켜 쾌적한 환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⑥ 강한 원적외선 복사열이 공기 중으로 방출되므로 이불을 덮지 않아도 구들장처럼 뜨겁게 방안 구석구석의 공기를 데워줍니다.
⑦ 냄새 제거, 공기 정화, 습도 조절, 전기요금 절감, 뛰어난 영구 보존.



취급 품목
◆ 숯침대
◆ 숯카우치
◆ 좌훈기
◆ 족욕기

숯침대Q : ~~3,300,000~~ → 판매가 2,200,000
숯침대S : ~~2,200,000~~ → 판매가 1,480,000
카우치 : ~~2,670,000~~ → 판매가 1,780,000
평 상 : ~~2,220,000~~ → 판매가 1,480,000
보료Q : ~~2,190,000~~ → 판매가 1,460,000
보료S : ~~1,590,000~~ → 판매가 1,060,000

주소 |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작은넙고개1길 78
구입 및 문의 | 031-532-3277. 533-3722. 010-7171-2636. 010-3576-6802